

6. 만세이엔(蔓青園)

오미야 분재 미술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만세이엔(蔓青園)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분재의 역사를 접할 수 있는 곳입니다. 만세이엔에는 수령 1,000 년이 넘는 진백이 있습니다. 정원에도 풍부한 역사가 있는 만세이엔이 설립된 것은 1850 년대입니다. 이후 이전하여 1925 년 오미야 분재 마을에서 문을 열었습니다. 만세이엔의 예술성은 분재의 재배와 전시라는 두 가지 면에서 돋보입니다. 만세이엔의 부지에는 다도 미학을 바탕으로 설계된 현대식 다실풍 건물이 있으며, 장식 공간인 도쿄노마(床の間) 등에 장식된 분재를 볼 수 있습니다.